

최영애선생님 녹취록

1. 생애사1 : 성장기 및 수학기 (1957-1988)

#. 질문1 자막

자막 :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연극으로 전공을 변경하시게 되었는데 궁금합니다.

최영애

00:33

연극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영문학을 하면서 좀 희곡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셰익스피어라든지, 특히 좋아했던 베케트라든지 이제 이런 희곡들을 접하면서 관심을 이제 많이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약간 그 대학 문화 중에서 연극을 보러 가는 게 굉장히 이렇게 다들 모든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기대하고, 희망하는 그런 문화였었기 때문에 대학 다니면서도 연극을 상당히 이제 많이 보러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때, 또 좋은 연극도 많이 나왔고. 그러다가 그냥 관객으로 좋아하는 정도였었는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계기가 돼서 "희곡을 조금 더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장하고 떨어져서 희곡만 읽는 게 재미가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극하는 현장을 가보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연극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희곡을 좋아하면서 연극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고. 연극 안에서 이제 아동청소년 연극 전공을 하게 된 거는 되게 우연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연극 전공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이제 미국에서 그때 아동 청소년 연극 특히 이제 연극 놀이를 전문으로 하신 분이 오셔서 (1981년) 이제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연극 놀이를 하시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영문학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저보고 통역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너무나도 우연히 그분 일을 도와드리게 됐고. 하다 보니까는 아이들과 작업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 선생님한테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해(1981년과 1982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저보고 '이런 아동청소년 연극 전공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적극적으로 권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동 청소년 연극을 접하게 된 계기는 그랬던 것 같아요.

#. 질문2

자막 : 동미시간 대학교에서 아동청소년극을 공부하셨을 때, 한국의 연극을 가르치는 방법과는 어떻게 달랐는지 또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최영애

04:02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가서 공부하게 된 게 이제 동미시간대학원이었는데요.

그때 갔을 때 이제 '즉흥'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연극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 '즉흥'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대본을 보고서 대본 리딩을 하고 블락킹(blocking)을 하고 그 블락킹(blocking)에 따라서 연극을 만들고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는 거의 다 모든 과정이 즉흥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즉흥을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좀 실험하고 또 시도해 보는 이런 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해진 상태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면서 배우들과 연출하고 같이 이렇게 찾아가는 그러면서 선택하고 결정해가는 이런 연극 과정이 되게 좀 우리나라에서 연출 중심으로 해서 연출이 모든 것을 다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이런 것과는 되게 달라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웠고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이제 전공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 어린이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연극을 어린이를 위해서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린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어린이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그 과정 안에 그 놀이를 하는 과정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와 놀기도 하지만 또 즉흥으로 연습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또 놀면서 즉흥을 해서 또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재미있고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의 연습 과정을 가지지 않아서 그게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2. 생애사2 : 활동기 (1988-2022)

주제사1 : 예술가로서의 삶

#. 질문3

자막 : 1988년도 한국에 돌아오셔서 12월, 극단 사다리를 창단하셨는데요. 그 당시 한국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 어떤 계기로 아동전문극단을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영애

06:52

아. 그 당시는 아동극을 전문으로 하는 극단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인극을 하면서 아동 교육을 약간 알바처럼 하는. 그러다 보니까는 아동극에 대한 약간 폄하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있었고, 심각하게 아동극을 대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좀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바 수준이기 때문에 연습도 오래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한 일주일 3~4일 전에 이렇게 캐스팅처럼 돼서 그냥 대본 이렇게 보고서 와서 또 대본도 제대로 된 대본도 많이 없고, 그래서 처음에 와서 보니까는 아동극이 연극의 일부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약간 레크레이션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래서 연극이라는 생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극을 연극으로서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인들과 함께 좀 고민하면서 연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 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극단 사다리를 창단하게 된 것 같아요.

마침 이제 그때 프랑스에서 인형극을 처음으로 공부하고 오신 임정미 선생님도 계셨고, 창단 멤버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유홍영 선생님하고 임동완 선생님 계셔서 그분들이 '뭔가 새로운 연극 접근 방법을 가지고 연극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분들도 워낙 창작하는 과정에 즉흥이 들어가는 거를 되게 재미있어하고 또 놀이적인 접근을 상당히 좋아하셔서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 좀 집중해서 '그들을 위한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연극을 한번 전문적으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극단 사다리가 처음에 창단되게 된 것 같아요.

#. 질문4

자막 : 극단 사다리에서 다양한 순회공연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당시의 상황이 순회공연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었는지 또 주요 관객층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최영애

10:03

그때의 주요 관객층들은 유치원 관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동극이 주로 되었던 것도 극장이 이 어린이를 위한 연극을 하는 극장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일반 극장을 오전에는 아동극을 오후에는 성인극을 그래서 아침에 공연을 하고 나서는 빨리 세트랑 이런 걸 다 치우고 오후에 성인극을 할 수 있게 아동극의 그 당시 상황

자체가. 질문이 뭐였었죠?

이예은

11:09

주요 관객층은 어떠했는지...

최영애

11:11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주로 극장들이 지하에 많이 있었어요.

지하 지하 공간에 많이 있었는데. 오는 관객들이 유치원생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단체로 다들 오는 거예요.

5살에서부터 한 6살, 7살. 이런 애들이 그 지하 킁킁한 데로 그렇게 해서 선생님을 따라서 막 걸어 내려가는데 거리가 다 유치원 관객이 끝인 거예요.

5살에서 6살 그러고 나서 그 단체 간격이 빠지면은 그다음에 이제 좀 초등학교 관객이 왔으면 좋겠는데 오전에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생들은 전부 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생은 또 단체 관객으로 공연을 보러 온다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치원 관객인데 지하에 있는 극장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단체로 와서 어두컴컴한 지하로 애들이 넘어질 듯 말 듯 하면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내가 공부를 할 때 아동 청소년 연극을 공부할 때에는 예를 들면 '8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공연을 보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극장이라고 하는 이런 킁킁한 공간에 와서 연극을 보기보다는 자기네들의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 안에서 그 공간이 변화가 되면서 연극적인 이런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는 게 일상 속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배웠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심지어는 지하로 킁킁한 곳으로 이제 어린이들이 울면서 때로는 막 무서워가지고 애들이 그리고 또 내려가면 불을 또 다 꺼요.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을 끄면 또 애들이 막 우는 애들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공연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찾아가는 공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유치원 혹은 국민학교 그 당시는 이제 초등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 있는 공간으로 찾아가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순회 공연을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관객들이 유치원 관객에게만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공연이 다양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5살에서부터 7살 정도의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소재와 주제 정도에서만 머무르게 되니까 사실 내가 공부를 할 때 아동청소년 연극은 사실은 17-18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5세에서 7세에서 끝나고 그다음에 전혀 올라가질 못하니까 되게 답답한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객 개발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극단 사다리에서 주력을 했던 게 초등학교 관객을 좀 개발을 하자 그래서 초등학교 관객들을 극장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사다리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이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극장에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제 유치원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동극하면 아기들이 보는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심지어는 벌써 4~5학년 되면은 '자기네들은 아동 공연 안 본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맞는 어떤 소재나 주제를 다룬 그런 형식의 또 아동극도 거의 없었어요.

유치원만을 겨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형극이 줄을 이루고 아동극이 이제 일반 연극처럼 아동극은 굉장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관객이라든지 관객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순회 공연이라든지 했을 때 이제 그런 좀 현상에서 오는 문제점들 열악함. 그런 것들이 초반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엔터테인먼트였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린이들이 와서 잠깐 즐거우면 된다는 생각이었지 그런 '이 연극을 봄으로써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떤 삶에 있어서 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3. 생애사2 : 활동기 (1988-2022)

주제사2 : 교육가로서의 삶

#. 질문5

자막 :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 처음 오시게 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최영애

17:34

연극원에 오기 전에 이제 그 극단 사다리에서 아동극 연출하면서 현장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아동청소년 연극 전공을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 나가서 전공을 하고 들어온 이제 첫 번째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동청소년 연극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저런 제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현장에서도 그렇고 또 연극계 안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 어린이들의 연극과 연극 교육에 관한 관심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때 아마 전 원장이셨던 김우옥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연극원 초대원장으로 오시면서 '청소년을 위한 연극도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일반 연극도 같이 자연스럽게 더 확장되고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청소년 관련해서 연극하는 부분을 같이 좀 해보자' 이제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현장에서 이제 주로 아동극을 그 당시에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 연극까지 올라가고 싶었거든요.

워낙 전공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유치원 관객들에만 머물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등 과정 고등 과정으로 올라가고 싶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관객이 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이제 김우옥 초대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청소년 연극 쪽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아동극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이 연극이 발전하려면 그런 미래 세대가 연극을 접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데에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극원에 아동극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어서 처음에 연을 맺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첫 학기는 아마 이제 강사로 제가 아동극 수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연극원 연기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 질문6

자막 : 연기과 안에 아동청소년극 과목이 개설되어있는데, 연기와 아동청소년극의 관계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최영애

22:25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연극원이 생겼을 때 5개과를 중심으로 해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동청소년 연극과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연기와, 연출과, 극작과, 무대미술과 그리고 또 연극학과 이렇게 5개 과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5개과 중에서 어디와 가장 공통되는 부분이 많을까. 왜냐하면 이제 과가 있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아동극 수업으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수업으로 시작한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극원에서도.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아동청소년 연극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하면서 어린이가 청소년과 만나야 되는 거니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연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주로 연출 작업을 많이 하긴 했지만 커리큘럼의 베이스는 연기가 베이스로 같이 갈 수 있고 가장 공통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할 때에도, 내 경우도 미국에서 수업을 할 때에도 그런 기본적인 수업들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연기가 가장 많은 교과 과정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연기와 처음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는 아동청소년 연극은 일반 연극하고 달라서 어린이 청소년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해서 대학을 들어온 친구가 자기개발을 하기 이전에 어린이 청소년과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학에서 자기를 좀 충분히 펼쳐보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한번 펼쳐보고 나서 그다음에 포커스를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하는 혹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연극을 하겠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대학 갓 들어온 친구들이 자기를 버리고 갑자기 우린 그래서 그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도 아동청소년 연극이 다 대학원 과정에만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침 이제 전문사 과정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학부에서는 사실 아동청소년 연극과를 둔다는 게 되게 어렵고 또 사실은 또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그 당시에는 않았기 때문에. 전문사 과정이 생길 때 자연스럽게 아동청소년 연극 전공 과정을 개설하게 되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 질문7.

자막 : 아동청소년극 전공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배우나요?

최영애

26:40

이제 크게는 저희가 초점을 맞춘 게 '연극 놀이 수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극 '아동청소년 연극 만들기 수업'하고 이제 이 두 분야가 있어요.

연극 놀이 수업은 주로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연극을 만들거나 연극의 과정을 함께하는 공유하는 이제 그게 주 포커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청소년 연극을 만드는 과정은 아동청소년을 관객으로 해서 이 연극을 창작해서 보여주는 이제 그 과정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과정이 이 안에 이제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두 과정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즉흥'이 기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연극 놀이'는 주로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연극적인 경험을 어린이 청소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연극적인 경험을 해보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원하면 연극 만들기까지도 가보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이제 즉흥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가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 연극 과정은 이제 여기 들어온 이 학생들이 주로 학부 때 연기를 전공했거나 연출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문학을 전공했거나 그래서 다른 전공들을 하고 들어온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각자의 전공들을 살려서 아동청소년 연극 안에서 이제 각자의 역할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래서 연출은 조금 더 연출로서, 또 연기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이제 연기하는 친구로서 그렇게 해서 아동청소년 연극을 창작하는 기회를 가지고 관객으로서 아동청소년을 만나는 이제 그런 두 과정이 같이 있어요.

#. 질문8

자막 : 학교 교과목 중 <연극놀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특별히 초점을 두시는 점은 어떤 것인가요?

최영애

29:46

아무래도 가장 중점을 두는 거는 연극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의 예술적인 감성을 가지고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기회를 갖는 이제 그게 연극 놀이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바탕은 놀이적인 즉흥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하는 과정이 중요하니까는 과정에서 즐겁고, 재미있고, 그리고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발견하는 그게 더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꼭 공연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좀 내려놓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어른들도 굉장히 연극 놀이를 하면 자기가 알지 못했던 자기의 어떤 예술적인 그런 성향들 아니면 어떤 기질들 그리고 그런 가능성들, 잠재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니까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안다는 게 참 즐거운 일이잖아요. 항상 그리고 늘 궁금하잖아요, 알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극 놀이의 주 포커스는 그런 예술적인 감수성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창의성 그리고 나의 고유성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예술가로서 혹은 내가 또 다른 어떤 전문인으로서 간다고 할 때, '나의 고유한 독창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하는 부분을 연극하는 과정 안에서 계속해서 탐색하는 거가 연극 놀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은 재미있고 일단은 그게 놀이적인 접근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즐겁고 이러니까 재미있고. 어른들의 경우는 미처 어린 시절에 자기가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경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어렸을 때의 내 모습을 다시 소환시켜서 내가 어른이 돼서 마주 보기도 하면서 그 둘이 분리돼 있거나 결별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의 내가 되는 거죠.

어린이와 지금의 어른인 내가 이제 이렇게 만나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나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연극놀이 수업이 사람들에게 좀 위안이 되기도 하고, 되게 좀 즐겁기도 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 질문9.

자막 : 어떤 계기로 학교에 오셔서 순회 공연을 만들게 되셨나요?

최영애

33:35

극단 사다리 하면서 순회 공연을 못 했던 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연극을 하는 사람들은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연극은 그냥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일 뿐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교도 그 당시에는 강당에 있는 학교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넓은 공간도 없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공연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실정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연극원에 들어와서는 연극원 이제 국립학교고 이러니까는 우리가 국립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문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연을 만들어서 학교 교육 현장으로 나간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다르게 좀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한번 문을 두드려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이제 교육기관에서 전문 교육기관에서 나가는 거라서 학교에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든지 또 국립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특별히 나가면서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공연료를 받는다면든지 이러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공연을 다니면서 공연만 딱 끝나고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연극 놀이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공연 가기 전에 이제 먼저 연극 놀이로 가서 아이들이 그 연극과 관련된 어떤 소재나 주제를 가지고 탐색하는 연극 놀이 수업을 해줘요.

가서 연극 놀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공연을 보고. 그리고 이제 공연 보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이 이제 피드백을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뭐 글로 쓴다든지 해서 피드백을 받으면 저희가 또 이제 그거를 같이 모여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을 할 때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렇게 쪽 거쳤기 때문에 그 순회 공연이 학생들에게도 '연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되고 이제 찾아가는 공연이다 보니까 매번 관객이 달라지고, 매번 공간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딱 정한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공간도 빠르게 파악을 하고, 그 공간에 맞게 연극을 다시 자기네가 아침에 가셔도 한 번 해봐야 되고. 관객이 또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정해진 관객이 아니니까 학교마다 또 학교의 문화가 있어서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런 공간의 변화와 관객의 지속적인 이 변화에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 자기도 살아움직이는 배우가 돼야지만 살아있는 연극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긴장과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같이 갖고 가지 않으면, 좋은 공연이 될 수 없으니까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예술가로서도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서도 그 과정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과과정 구성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4. 생애사2 : 활동기 (1988-2022)

주제사3 : 여성(예술가 혹은 교육가)로서의 삶

#. 질문10

자막 : 오랜시간 '연극'이라는 썬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여성예술가'로 살아가며 느끼셨던 고민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영애

41:16

우선은 이제 요즘하고는 되게 많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서 그 어린 특히 이제 시작할 때 20대였었기 때문에 '20대에 어린대 여성이 연극 연출로서 출발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좀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리다는 것도 힘이 들었고. 여성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힘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성으로서 연극 안에서 어떻게 나를 좀 주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들이 되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동청소년 연극을 하면서는 거의 아동청소년 연극을 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어린이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의 남성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의가 다 이제 여성 예술가들 또 혹은 예술 교육하시는 분들도 주로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는 아동청소년 연극하면서는 내가 특별히 여성이어서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교육을 하는 관점이 되다 보니까 오는 학생들도 여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연극 안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거의 한 80~90%가 여학생 그 다음에 이제 한 10% 정도가 남학생이 지원을 할 때에도 그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학생들이 되게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학생들이 되게 똑똑하고 도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호기심 많은 그런 좀 강력한 이제 그 여학생들이 오히려 들어와서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았는데. 이제 공연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어린이들이 예술 교육을 함께 경험할 때 그런 여성 예술가만이 아니라 남성 예술가와도 함께 경험을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좀 균형 잡힌 이런 그 경험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이제 '어린이'하면 당연히 이제 그 '여자의 영역'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양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특별히 더 꼭 우리나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서 사회적인 어떤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오히려 좀 더 놀라운 게 남학생들도 되게 감성적이고 굉장히 어린이들을 배려하고 좋아하는 이런 남학생들의 경우도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훨씬 더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초창기 때에는 당연히 '양육'과 '교육'은 '여성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선입견들을 어떻게 이제 좀 깨면서 갈 건가'하는 것이 좀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도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마이너한, 그러지 않아도 어린이들도 그런데 또 여성도 그것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든 역할과 그것을 하고 있는 이 집단의 어떤 성격이 되게 마이너한 이런 특성들로 이제 사회적인 이제 판단을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지점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그 생각은 좀 들어요.

#. 질문11

자막 : 아동청소년극이라는 것이 ‘돌봄’이라는 편견이나 인식이 여전히 만연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편견 속에서 아동청소년극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영애

47:35

2000년대 들어오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엄청난 관심과 지원이 사실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예술 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들이 이제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좋아진 점도 있지만 되게 이제 문제점도 많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전문가들이 있어야지 그것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발전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정책은 생겼는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단 정책이 실행이 되다 보니까는 그냥 예술을 한 사람들이 하나의 직업의 필드로서 예술 교육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겨나면서... 예술... 질문이 뭐였었죠? 질문 한 번만 다시...

명소희

49:07

아동청소년극에 대한 한국에서의 연구가 얼마나 활발한지

최영애

49:12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관심들을 더 많이들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예술 교육이 주로 이제 어린이들 를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와 함께하는 예술은 또 어른들이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전혀 쌓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책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또 그래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더 좀 공부를 하고 싶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연극은 좀 알지만 어린이랑 같이 연극을 만드는 과정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너무 소통이 안 되고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른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연극을 만드느냐보다는 어떻게 애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도대체 연극을 만들어 갈 것인가 혹은 연극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는 연극 놀이와 아동 청소년 연극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생겨나고. 이제 여전히 너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특히 아동청소년과 함께 할 때에는 연구와 함께 이런 연극하는 작업이나 그 과정이 연구와 함께 가야 한다면 이런 생각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은. 그래서 그 리서치와 함께하는 현장에 대한 이런 시도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연극원에서도 찾아가는 공연을 나가거나 아니면 레파토리에서 청소년 연극을 할 때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그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연 과정의 일부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피드백을 또 받아서 실제 창작 과정에 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연극원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모든 창작 과정에 다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이제 국립 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서도 그 과정을 같이 갖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극단에서도 이제 요즘에는 조금씩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미미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이게 함께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 질문12

자막 : 아동청소년극에 대한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은 무엇이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영애

54:00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입견 아동청소년 연극에 대한 선입견은 사실은 그 두 가지에서 비롯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 있다라고 하는 그게 사실 어린이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태어나면은.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성인이 툭 돼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뭐가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에 대한 그 질문들을 함께 갖고 가야 한다면 당연히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 이게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어서 과연 우리가 연극을 할 때 얼마나 인간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가는가라고 할 때 아동청소년 연극은 그거를 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좀.. 좀 기본적인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연극 예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을 내가 전수받아서 그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연극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시작이 돼서 연극이라고 하는 형식을 애들이 만나게 될까 어른이 주는 연극의 형식을 애네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걸까 아니면 애네들의 삶 안에서 연극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예술의 형식을 애네들이 발전시키거나 발전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극이 도대체 뭘까. 연극이 가지고 있는 그 연극의 형식이 우리 인간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고, 어떤 관계를 갖고 지금 서로 소통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서는

아동청소년 연극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지 않고서는 아동청소년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동청소년 연극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깊은 질문이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질문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되게 아동청소년 연극을 폄하하는 그리고 깊게 삶을 이렇게 통찰해내는 이거를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선입견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의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5. 생애사3 : 정착기 (2022-현재)

#. 질문13

자막 : 선생님께서 아동청소년극 연출뿐만 아니라 후학 양성과 연구까지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영애

59:23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아동청소년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립극단에 있으면서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술 교육 감독이라고 하는 역할을 신설을 한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예술 감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배우라든지 연출이라든지 있지만 아동청소년 연극에서는 관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배우나 이런 스태프들하고 똑같이 중요한 위치거든요.

관객이 주체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관객이 바라보는 세상을 경험하는 그 시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소통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관객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연령 차이가 많으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 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객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관객이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들, 시각들, 이런 거를 알고 거기에 대한 연구와 질문을 계속해서 갖고 가는 게 필요한데. 일반 연극에서는 사실 관계를 연구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연극원에서 연극 레파토리 청소년 연극을 만들 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순회 공연을 갈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교육감독이나 예술 교육 감독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관객에 대한 소통하는 어떻게 연극을 통해서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연구를 하는 바로 이제 그런 작업을 이렇게 격려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이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면은이제는 관객으로 돌아와서 관객의 입장에서 좀 연극을 아동청소년 연극을 좀 더 자유롭게 좀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아동청소년 연극을 만들고자 하는 그 후배들이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플랫폼을 만약에 격려할 수 있다면 이제 그런 격려하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서의 어떤 지지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명소희

1:04:00

학교에서 해방되었는데 제가 다시 학교로

최영애

1:04:06

학교로 돌아가지는 않고요. 나는 이제 지금은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내가 정말 보고서 내가 좀 좋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가볍게 나눌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 질문 14

자막 : 마지막으로 선생님 삶에서 한 아동청소년극이란 무엇인가요?

최영애

1:04:50

음...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우선은 그 어린이를 만난 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삶을 계속해서 맥박을 뛰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한 프로젝트를 마감할 하느라고 이제 이태리에 다녀오면서 거기서 이제 0세부터 6세까지의 관객을 위한 연극을 중점적으로 하는 페스티벌이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1살에서 3살 정도 되는 아기들이 그 공연을 보면서 너무나도 집중해서 앉아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도 않고 되게 몰두해서 보는 그런 그걸 봤을 때, 내가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뛰는 그런 거를 막 느끼거든요. 그리고 개네들이 공연 끝나고 나면 막 무대 위로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웃으면서 그 배우들하고 같이 막 소품도 만지기도 하고 음악 같은 거 악기들을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거를 보면은 그게 되게 나를 이렇게 젊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청소년 연극을 한다는 거는 내가 꼭 연극 창작자로서 어떤 연극을 만든다 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 있으면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연극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떤 연극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나를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청소년 연극은 나를 발견하고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